

APEC 정상회의 빛낸 K-뷰티… 전 세계에 우수·혁신성 알려

LG생활건강 ‘더후’, 국민세트 협찬 대표품목 환유고·환유 동안고 선배 경주서 영감 얻은 ‘천년의 빛’ 선물함

CJ 올리브영 ‘최고의 종합 K뷰티’ 17종 엄선… 기념품 8000세트 협찬

에이피알 ‘부스터 프로’, 뷰티테크 알려 아모레퍼시픽, K-뷰티 혁신성과 공유

K뷰티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이번 행사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를 위한 선물로 궁중 피부 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 국민 세트를 공식 협찬했다. 특히 브랜드 대표 품목인 향산화 크림 ‘환유고’와 ‘환유 동안고’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선물함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제1호 칠장 수곡(守谷) 손대현 장인이 손수 제작한 ‘국화당초문 나전칠기함’으로 마련해 품격을 높였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 주요 기업 CEO를 위한 선물로도 더후 환유고 54개와 천년 고도 경주에서 영감을 얻은 ‘천년



국가 정상 배우자 전용 ‘더후 환유고X나전칠기’.

/LG생활건강



2025 APEC 회원 대상 선물 ‘더 베스트 K뷰티 셀렉션’

/CJ올리브영

의 빛’ 선물함을 전달했다. 이 선물함도 특별히 손대현 장인이 만든 또 다른 모습의 나전칠기함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더후가 오랜 기간 축적한 독보적인 스킨케어 기술력과 국산 명품 브랜드로서의 진가를 세계 최고의 VIP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APEC과 같은 국가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차별적 고객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K뷰티 전용 유통 기업인 CJ올리브영은 2025 APEC 각 회원 정상 공식 선물로 중소·인디부터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17종을 엄선한 ‘최고의 종합 K뷰티’를

기획했다.

올리브영은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합입은 K뷰티 경쟁력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포장에는 신라 금관 디자인, 전통 매듭 등을 적용하고 원목 소재와 자개를 활용하며 한국 전통미의 정수를 표현했다. 올리브영은 정상 선물 외에 정부 대표단, 고위 관리 등을 위한 K뷰티 기념품 약 8000세트도 협찬하며 힘을 보탰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번 2025년 APEC 회원 정상 선물 채택은 올리브영과 중소 브랜드가 함께 이뤄낸 K뷰티 산업 생태계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상

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브랜드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뷰티 산업의 기반을 함께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은 ‘K뷰티테크’ 위상을 공고히 높였다. 특히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등을 공식 협찬했다.

에이피알이 전개하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은 부스터 프로, 부스터 진동 클렌저, 하이 포커스 샷 플러스 등 신제품을 지속 내놓으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9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500만 대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 매출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

섰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체 기술력과 제품 안전성 검증으로 국내외 시장에 적극 도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K뷰티’에 적극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0여 년 전통의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은 APEC 정상 회의 기간 중 한국 화장품 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K뷰티의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APEC CEO 서밋 전용 프로그램으로 K뷰티 파빌리온을 운영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부터 컨템포러리 서울 뷰티 브랜드 ‘헤라’, 글로벌 핵심 브랜드 ‘라네즈’, 인공지능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메이크온’, 고급 차(茶) 브랜드 ‘오설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집중 연구개발 성과를 결집한 K뷰티 우수성과 혁신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뷰티 솔루션을 선보이며 K뷰티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이오팜, 의료·헬스케어 AI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 주관 프로젝트 참여
신약·디지털트윈 모델 개발 담당

SK바이오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 주관 사업으로 의료, 법률, 제조 등 국가 핵심 산업별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 SK바이오팜은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이 주관하는 의료·헬스케어 컨소시엄의 수행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루닛 컨소시엄은 의과학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친 데이터(분자·단백질·임상 등)를 통합해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바이오팜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디지털 트윈(가상 환자 기반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담당한다.

특히 중추신경계(CNS) 질환 중심으로 화합물·단백질 데이터와 임상·실사용 데이터를 결합해 신약개발 과정을 고도화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설계까지 아우르는 연구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바이오팜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I/DT)센터를 통해 제약 기업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DT센터는 최고경영책임자 직속 조직으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도구, 인공지능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해외 관계사 정보화 연결 등을 총괄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우선 후보물질 발굴부터 품목허가 획득, 글로벌 상업화까지

신약개발 전체 과정을 독자 수행한 국내 유일의 제약사다. 이와 함께 신약 발굴·개발·치료 전체 과정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연결하고,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 경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북미 지역에서 조인트벤처 ‘멘티스 케어’를 설립하는 등 생체신호 기반 인공지능 모델의 상용화와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에 선정돼 매우 뜻깊다”며 “AI/DT센터를 중심으로 루닛 등 국내 AI 선도기관들과 협력해 AI 기반 신약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국제약, 먹는 치질약 ‘치센정’ 선봬

디오스민 함량 2배 늘려

동국제약은 중등도 이상의 치질 증상을 위한 고효량 디오스민 제제인 먹는 치질약 ‘치센정’ (사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치센정은 일반의약품으로, 기존 치센 캡슐 대비 유효성분인 디오스민 함량을 2배 함유한다.

디오스민은 유럽에서 개발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계열 성분으로, 혈관 탄력 개선,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 치질로 인한 통증, 부종, 출혈, 가려움증 등을 개선해 준다.

특히 치질 증상이 심한 경우, 치질이 자주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신속한 증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캡슐 복용이 어



려운 경우, 간편한 치질 관리를 선호하는 경우 등 다양한 증상에서 복용 가능하다. 1정(600mg)을 하루 2~3회(총 1200~1800mg)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치센정은 중등도 이상의 치질 증상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환자들을 위한 고효량 제품으로 처방됐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삼양바이오팜 인적분할 후 공식출범

삼양바이오팜은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분할 방식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형태로 이뤄졌으며, 오는 24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애경산업 ‘루나’, ‘베베 더 오리’ 한정판

커버력 강조… 컨실러 등 14종 구성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에서 글로벌 인기 캐릭터 ‘베베 더 오리’와 협업한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베베 더 오리는 귀여운 외모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MZ세대와 적극 소통하고 있는 캐릭터다.

이번 협업 주제는 ‘이 구역의 커버짱’으로 루나 제품의 장점인 커버력을 강조한다.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커버력을 잃지 않는 현대인에 적합한 ‘롱래스팅 팁 컨실러’ 5종, 언제 어디서든 잡티



‘루나X베베 더 오리’ 한정판.

/애경산업

없는 피부를 유지해 주는 ‘컨실 블렌더 팔레트’ 2종, 강하면서도 감성적인 ‘하이 퍼트 필터 쿠션’ 4종, 다양한 디자인을 담은 ‘프로 포도 피니셔’ 3종 등 총 14종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한촌설령탕, 국탕류 간편식 최대 60% 할인

‘뽕-다세일 기획전’ 첫 참여
인기 가정 간편식 메뉴 구성

한촌설령탕이 네이버 ‘뽕-다세일 기획전’에 첫 참여해 오는 11일까지 국탕류 시그니처 간편식 라인업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고물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 부담은 줄이되, 맛과 영양, 품질을 모두 챙기는 ‘합리적 프리미엄 간편식(HMR)’이 새로운 식사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2024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에 의하면 최근 1

년간 가정간편식 구입 경험이었다고 답한 가구는 77.9%로 전년 67.3%에 비해 10.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저녁 식사용으로 간편식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69.1%에 달하는 등, 한 끼의 완성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프리미엄 HMR 트렌드를 반영해 지난 추석 네이버 프로모션 당시 30~40대 여성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더블랙 프리미엄 진 고기설령탕 ▲한우사골곰탕을 중심으로, ▲더블랙 프리미엄 명품 소갈비탕 ▲더블랙 프리미엄 진소양내장탕 ▲수만두 등 인기 가정 간편식 메뉴들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